

사회생물학 관점에서 조명한 인간과 동물의 세계

이병훈 지음 「유전자들의 전쟁」

우리가 한 생명체로 태어나 생명의 신비를 캔다는 것은 두려움이고, 기쁨이고, 그 혼합의 떨림일 것이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우리의 눈빛은 오늘도 우주로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생존경쟁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그려지던 인류의 자화상은 바야흐로 사회생물학의 유전자, 집단생물학, 진화학적 분석과 접근 그리고 종합을 통한 새로운 생명관으로 인해 인간의 또다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유전자들의 전쟁」은 저자인 이병훈씨가 '행동으로 본 동물의 세계'라는 주제로 일간지에 연재했던 내용들이다. 여기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월슨의 「사회생물학」중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됐던 제1장 '유전자의 도덕성'과 제2장 '인간: 사회생물학에서 사회학까지'를 실었다.

이 책은 행동생물학과 사회생물학이 자연스럽게 조합돼 있다. 갖가지 동물의 행동중에서 그 기작, 적응성 그리고 진화를 설명하면서 동물의 '행동으로 본 사회생물학'의 세계를 열어보인다.

이 책에 자주 언급되는 「사회생물학」의 저자 월슨은 "인간이 초월적 존재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다만 하나의 생물체임을 인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생물의 주요기능은 또다른 개체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은 "유전자의 임시 운반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사회생물학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며 유전적 진화라는 매개로 인간의 근원에 접근하고 있다. 인간행동의 근원을 알려면 생물체로서의 본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물론 모든 생물학적 기초가 우리 생활에서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의 유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증식하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산아제한이라고 하는 문화적 구속에 의해 자식을 하나 혹은 둘만 낳고 있다.

「유전자들의 전쟁」의 저자는 직관에 의한 도덕의식을 허구로 보고, "도덕적 규약은 주어진 조건에서만 학습된다"고 하는 도덕적 행동주의를 비판한다. 월슨이 설명하고 있는 '사회생물학'은 "오직 뇌속에 있는 정서중추의 작용기작이 밝혀지고 생물학적 적응으로서의 역사와 진화과정의 밝혀질 때 비로소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의 도덕규범의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의 기준은 정서중추의 복합적 활동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활동기작들 가운데 일부는 가장 원시인류의 부족생활에서 온 적응 잔재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것은 최근 형성된 적응 메커니즘일 수도 있으므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도덕적 판단 메커니즘의 유전적 진화가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편향되거나 획일화된 도덕규범을 부과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오늘날 인류사회가 처한 여러가지 현실과 도덕규범 사이의 딜레마들이 그런 데서 오는 심각한 도덕 규범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들의 전쟁」은 저자가 동물의 행동기작을 토대로 인간행동에 대해 진화론적 검토와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행동으로 본 사회생물학의 세계'를 보여주는 책이다.

민경성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주공아파트 329동 308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한 권의 책이, 그리고 좀더 소박하게는 어느 한 편의 글이 현실에 너무도 깊숙이 침투해 있을 때 나는 그 글을 읽으며 힘겨워한다. 그것은 현실의 부름과 유혹 앞에 정당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나의 나약한 실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비릿하고 끈적끈적한 현실의 삶에 너무도 가까이 있을 때 내게는 그것과 나 사이에 놓여있을, 아니 놓여있어야만 할 반성적 거리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 부자유를 충분히 수락하면서도 그것이 역사에 대한 거친 참여나 생경한 복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나의 무의식 속에 침잠해 있는 계급적 속성과 정치적 무관심의 움직임은 그것이 현실에 가까이 갈수록 힘차게 꿈틀대지 않는다. 그것은 퍼덕퍼덕 살아있는 날 것 상태의 구호나 이념을 한번 비틀고 여파시킨—이것을 어떤 이는 현실로부터의 후퇴라고 지적한다—담론의 부드러움에 의해 옷을 벗고 품에 안긴다. 이것이 나의 초라한,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계급적 특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념에 복무하지는 못하지만 이념을 끝내 지향한다.

최근에 읽은 김진명의 장편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해냄, 1993)는 이와 같은 이

유에서 힘겹게 했다. 참으로 순식간에 읽어내려 갔지만 나는 그 속도의 쾌감에 빠져 내가 가져야 할 텍스트와의 반성적 거리를 잃어버렸다. 책을 덮고 나서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었고 그것은 사후약방문처럼 내 머리를 무겁게 했다.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자 결정적인 단점은, 너무도 현실지향적이고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며 결정적이라는 데 있다. 이 소설이 서술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나에게—아마도 모든 독자들에게—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불러 일으킨다. 이것은 이 소설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결정적 고리이지만 그 고리가 끊어질 때 이 소설은 해체된다. 몇 개의 연속적인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이휘소의 존재와 한국 현대사의 '무대 뒤의 분장실'과 미래에 대한 사진첩을 엿보고자 하는 욕망—으로 귀결되기에 이 소설은 힘차면서도 허약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소설이 좀더 중추적이고 복합적인,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허구일지라도 '역사 파헤치기' 식의 추리소설과는 맥락을 달리하는, 이른바 '대체역사소설'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물론 부질없는 투정이다. 그리고 이와 투정을 부린 김에 한 가지를 더 청얼대자면, 이 소설에 나오는 대통령과 안기부장—비록 누구인지는 모르지만—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김 범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755 삼성아파트 17동 1501호

롤랑 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

정지된 시선 즉 사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들어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두껍고 값나가는 사진이론집과 사진역사책들이 여기저기서 출간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진의 본질과 매력에 대해 독창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책으로 롤랑 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롤랑 바르트에 의하면 "사진의 가치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흥미를 불러 일으킬 때 나타난다." 그는 이 책에서 사진을 보는 두가지 '시각의 개념'을 제시한다.

도덕적, 정치적 교양이라는 합리적인 중계

를 거친 '스튜디오' 개념과 스튜디오를 방해하면서 보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푼크툼' 개념이 그것이다. 롤랑 바르트는 후자인 '푼크툼'에 대해 "모든 지식, 모든 교양을 추방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물려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처럼 그가 사진을 바라보고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푼크툼이다.

찰스 클리포드의 사진 「알함브라(그라나다)」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저 멋있다고 여길 뿐이다. 그렇지만 바르트는 이 사진에 커다란 애정을 갖는다. 이 또한 '푼크툼' 개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알함브라」가 그에게 일반화된 감정을 유도하고 그 감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단지 그가 예전부터 살고싶었던 이상공간이 바로 알함브라였다는 것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바르트의 개인적인 성향이 사진분석에도 적잖게 개입됨을 알 수 있다.

푼크툼의 개념에는 형태는 없으나 강도를 지닌 시간개념이 포함돼 있다. 그것은 '존재했음'과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은 어떤 사실에 대한 '애절한 강조법'이자 연민이다. 이 책도 바르트의 '애절한 강조법'의 하나로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고하기 위해 씌어졌다. 그는 온실에서 찍은 어머니 사진을 통해 그에게만 느껴지는 푼크툼과 그 사실이 존재했음의 우울함을 설명하고자 한다.

롤랑 바르트가 주장하는 독창적인 사진의 특수성, 즉 푼크툼은 사진을 암전하게 만들려는 허위적인 사회성에 대항하고 있다. 그는 사회외면에서 부정부주의, 변경주의, 개인주의와 함께 "매개체 없는 욕망을 구출하자"는 외침이 울리는 것도 푼크툼때문이라고 한다.

김소희

서울 도봉구 창3동 503-7

바이어트 지음 「소유」

'책'이라는 잎과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풍족하다. 영국의 최고 문학상 '부커상'을 수상했던 바이어트의 언어에 매료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는 지금의 세대에게 「소유」는 학문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준다. 시간을 한참 되돌려 놓은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이야기…….

평범하지만 성실한 주인공 롤런드는 어느날 도서관에서 낡고 온통 먼지로 덮여 있는 빅토리아 시대의 천재 시인 램돌프 애쉬의 책에서 연애편지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편지에 마음이 끌린 롤런드는 지적 호기심이 발동한다. 그는 고양이 냄새가 진동하고 습기찬 곳에서 살고 있으며 이지적이고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즈음 또다른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녀 역시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많은 모드라는 여인이다. 롤런드는 그녀를 만나 의문의 편지의 해답을 하나하나 찾아 나선다.

한장의 편지로 시작해서 한장의 편지로 끝나는 이 이야기는 인용된 문장이 길어서 따분했지만 언어의 치밀한 구성력과 지적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단순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로망스, 시, 편지, 일기들을 가미시켜 더욱더 세련된 책으로 이어진다. 글쓰는 사람은 자신의 글이 인간의 호흡처럼 영원히 살아 움직이기를 원한다. 힘들게 쓴 글을 심부름 이해하는 독자가 있다면 최고의 행복일 것이다. 작가와 독자가 공감대를 형성한 책이라면, 그 책은 분명 성공작일 것이다. 「소유」는 여러 대에 걸쳐 음미될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허영으로 가득찬 '소유'가 아니라 참다운 소유의 개념을 알려준다.

허미연

전남 순천시 금곡동 123번지 2동 4번

박경리 지음 「김약국의 딸」

오랜 전통을 지닌 민족은 슬픈 이야기가 왜 그리도 많을까?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을 읽으면서 번뜩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색깔로 말하자면 잿빛하늘 밑 검푸른 대지와도 같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라면 벗어날 수도 탈출할 수도 없는 높은 벽이다. 높은 벽, 흔히恨으로 표현된 우리민족의 고통의 집산체. 「김약국의 딸」을 읽으면서 이 한많은 민족의 생활을 되새김질 해본다.

박경리의 소설은 충무땅 토박이 냄새가 물씬나는 그 고장의 언어로, 어두침침하고 한뼉 한 서민들의 사는 이야기를 토로한다. 잔인하리만큼 처절한 그들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동정심을 유도하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의 연속이다.

김약국의 다섯명의 딸의 생존사는 그만큼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어떤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친근감을 주는 이유는 박경리 소설의 현실주의적 성향은 읽을 수 있기 때문이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소비적 쾌락에 갇혀진 현대인의 도덕론과 민족론이 본능적으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약국의 딸」은 이런 외양적인 감각외에도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소설의 전반에 깔린 어두운 현실속에서 박경리는 한

국여성의 한과 인간의 죽음문제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매우 조목조목 건드리고 있다. 김약국의 딸들이 체험하는 비극은 그 자체의 원인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극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린다.

첫째딸 용숙의 처세술적 노랭이기질은 본래의 성품보다는 남편을 여의고 난 뒤 더욱 표출화되는 것으로 그리다든지, 셋째딸 용단의 미친병은 그 시대가 허용할 수 없는 도덕적 한계선을 넘어섬으로써 나타난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욕망도 그 시대의 도덕과 감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여성의 한을 엮어매는 사슬이다. 막내딸 용혜의 운명은 더욱 비참하다. 용혜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그녀의 미래 또한 산산조각난다.

이처럼 한국여성의 운명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건지워진다(어떤 경우 우월적인 남성의 그릇된 권력남용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 그것이 바로 이 소설에서 한번 토론해 볼 만한 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적 생애의 탈출자는 자기자신일 수 밖에 없다. 둘째딸 용빈의 모습은 이런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실제적인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용빈은 자신의 가족의 비극적 생애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박경리는 용빈의 인격성을 자립적이고 교양적으로 그리면서 이 소설의 비극성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로 간주한다. 무거운 마음으로 막내동생 용혜를 데리고 서울로 가는 용빈. 그녀의 모습속에서 한국여성의 삶을 비추어 주는 어떤 등대불을 발견하게 된다.

나영옥

서울 동대문구 청량2동 580번지 2/7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S E OULE DITORIAL DE SIGNSCHOOL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S

서울편집윙스쿨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문의(代) 672-1841 · 2 FAX · 671-8317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방향 100미터

편집 · 취재 기자 교육생 모집

국내 최초의 편집교육기관이 갖는 의미

- 최첨단 전자출판(DTP) 교육을 이룩해냈습니다.
- 전통이 깊은 만큼 교육이 알차습니다.
- 교육시설 / 컴퓨터 편집실(3개소) · 잡지사보편집실 · 단행본 학습지편집실 / DTP실습실
- 전통이 깊은 만큼 취업관리가 체계적입니다.
- 취업률 96%에 대한 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취업 연계 출판 · 잡지사의 확보도 깊고 넓습니다.
- 문의 즉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현직인을 위한 D.T.P 교육

- 과정 : DTP(컴퓨터편집)
- 기간 : 2개월(매킨토시 실무교육)
- 대상 : 현직출판편집자, 편집학원이수자

편집 · 취재기자로 첫발을!



성공적인 첫 출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문 · 잡지 · 사보 · 출판 · DTP

편집 · 취재 요원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곧 서울편집으로 전화하십시오

- 모든 취업관리가 전산화 되어 있어 신속한 인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 본원 교육은 현장적용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채용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원 교육은 성실과 책임감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 어느 연고를 통해 입사한 요원보다 성실합니다.
- 본원 발행 취업속보(취업 예정자 명단)를 받아 보지 못한 업체께서는 연락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본원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 SE OULE

ALDE SIGNSCHOOL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S

DITORIAL DE SIGNSCHOOL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S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S SE OULE DITORIAL DE SIGNSCHOOLS